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10월 5일 개막

한국시리즈는 24일부터

올 시즌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다음달 5일 시작한다.

KBO는 지난 19일 2017년 제7차 실행위원회 회를 개최하고 포스트시즌 경기일정과 엔트리 제도(리그규정 제45조 출장자격)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포스트시즌은 10월5일 개막해 정규시즌 4위팀과 5위팀이 겨루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후 8일부터 정규시즌 3위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팀이 맞붙는 준플레이오프(3선승제)가 이어진다.

16일부터는 정규시즌 2위팀과 준플레이오프 승리팀 간의 플레이오프(3선승제)가 치러지고 정규시즌 1위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우승 트로피를 두고 겨루는 대망의 한국시리즈는 24일부터 4선승제로 펼쳐진다.

현재 진행 중인 정규시즌 경기가 우천 등으로 인해 종료 예정일인 10월3일 이후로 연기될 경우 정규시즌 종료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시일 사이에 최소 1일의 이동일을 두고 재편성할 수 있다.

단,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관계없는 팀의 경기가 연기돼 포스트시즌 경기일정과 중복될 경우 포스트시즌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최대 2경기)은 모두 정규시즌 4위팀 홈구장에서 열린다. 1승의 어드밴티지를 부여받은 4위팀이 1차전에서 승리하거나 무승부가 될 경우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올 시즌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10월5일 개막해 정규시즌 4위팀과 5위팀이 겨루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오프에 진출한다.

포스트시즌 경기가 우천 등으로 연기될 경우 다음 날로 순연되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사이에 최소 1일을 이동일로 한다. 단, 경기가 순연돼도 정해진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된 일정대로 경기가 진행된다.

포스트시즌 연장전은 15회까지이며, 무승부로 끝날 경우 해당 경기는 각 시리즈별 최종전이 끝난 후 무승부가 발생한 구장에서 이동일 없이 연전으로 치러진다. 이 경우 무승부가 발생한 구장의 구단은

홈팀이 되며, 한 시리즈에서 2경기 이상 무승부가 나올 경우 1일의 이동일을 두고 연전으로 진행된다.

포스트시즌 경기 개시 시간은 평일 오후 6시30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2시이다. 또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등 KBO 포스트시즌 등록 인원을 기존 구단 당 28명 등록, 28명 출장에서 30명 등록, 28명 출장으로 2명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구단은 KBO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등 각 시리즈의 1일 전까지 등

록 인원 30명의 명단을 KBO에 제출한 후 매 경기 개시 3시간 전까지 당일 출장 선수 28명의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포스트시즌 엔트리 등록 인원 확대로 구단은 선수 기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한편, 실행위원회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에도 포스트시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O 정규시즌 우승팀에게 20% 공제 후 한국시리즈 우승 팀에게는 종전과 동일하게 50%를 지급한다.

/뉴스이

전국 부부·가족마라톤대회 24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서 개최

부부·가족이 함께 마라톤코스를 완주하며 가족 간 화합을 다지고 건강도 지키는 특별한 마라톤대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제16회 전국 부부·가족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마라톤은 인내력과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로 이번 대회는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전주천변을 따라 삼천교를 반환하는 코스로 하프코스(10km)와 5km코스 등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부부사랑과 가족화합을 위한 전국 유일의 부부·가족 마라톤 대회로, 부부팀을 위한 시상도 따로 준비됐다.

또한, 23일 저녁에는 전야제 행사로 부부 35쌍과 마라톤러를 초청해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전주 차마중길에서 전국부부노래자랑 등 가족의 화합을 위한 특색 있는 행사도 준비됐다.

최락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회는 가족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생활체육대회로, 부부·가족 마라톤 마니아들이 많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방탄소년단, 한국가수 첫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대세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글로벌 스트리밍사이트 '스포티파이(Spotify)'의 '글로벌 톱 50'에 진입했다.

19일(영국시간)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새 미니앨범 '러브 유어셀프 송 허'(LOVE YOURSELF 承 HER)의 타이틀곡 'DNA'는 '글로벌 톱 50' 차트에서 50위를 기록했다.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톱 50' 차트는 세계 발매된 음원 가운데 일간 스트리밍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차트다. 이 차트에 한국 가수가 진입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라고 빅히트는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8 오후 6시 앨범을 공개해 미국, 영국 등 세계 73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DNA는 노르웨이, 브라질 등 29개국에서 '톱 송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DNA' 뮤직비디오는 한국 가수 통틀어 최단 기간 유튜브 조회수 1000만과 2000만뷰 돌파를 기록하는 등 연이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1일 세계 동시 생중계되는 엠넷 캠퍼스 - BTS DNA에서 새 앨범의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

/뉴스이

프로야구 FA시장 '들쭉'

국내 복귀선언 황재균·복귀 가능성 있는 김현수

올해 해외파들의 운명은 극명히 엇갈렸다. 이 중 다수 우울한 한 해를 보낸 선수들이 있다.

바로 빅리그 꿈을 이루기는 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황재균(30), 팀 내 입지가 불안한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 올 시즌 한 번도 빅리그 무대를 밟지 못한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다.

이들 중 이미 황재균은 국내 복귀를 선언한 상태다.

황재균은 "미국 진출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다"며 국내로 돌아올 뜻을 밝혔다. 2015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2년 계약을 맺은 김현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돼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올 겨울 FA 시장은 굵직한 선수들이 많지 않아 비교적 잠정하리라는 예상이 많

았지만 황재균의 국내 복귀 선언과 김현수의 복귀 가능성 탓에 벌써부터 들쭉이고 있다.

황재균, 김현수 정도라면 4년간 100억원에 가까운 몸값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장 먼저 유턴 결심한 황재균

2016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황재균은 치솟는 몸값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스프링계약을 체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메이저리그를 향한 꿈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황재균은 시범경기 27경기에서 타율 0.333(48타수 16안타) 5홈런 15타점 7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러 스프링캠프 최고 신인에게 주는 바니 뉴턴트 어워드까지 수상했지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트리플A에 머물던 황재균은 계약 당시 7월2일까지 메이저리그에 승격하지 못하

면 FA 자격을 얻는다는 옵션아웃 조항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서야 빅리그 승격 기회를 잡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2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빅리그 데뷔전을 치른 황재균은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하며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았고, 제 기량도 마음껏 펼쳐 보이지 못했다. 빅리그 18경기에서 타율 0.115(52타수 8안타) 1홈런 5타점 2득점에 그친 황재균은 다시 트리플A로 내려갔다.

황재균은 9월 확장 엔트리 때에도 빅리그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일 그를 양도선수지명 처리하고 웨이버 공시했다.

트리플A 시즌이 끝난 직후 황재균은 국내 복귀를 선언했고, 지난 11일 귀국했다.

▲입지 불안한 김현수도 저물질 김현수는 2015시즌을 마친 뒤 볼티모어와 2년간 700만 달러에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떠났다.

계약 조항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포함한 김현수는 2016시즌을 구단의 마이너리그 권유를 거절했다가 2016년 개막전에서 आयु를 받았다.

/뉴스이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